

與 ‘최순실 파문’ 희석 안간힘...野 “민심의 분노 안 보이나”

‘트럼프 쇼크’ 정국 항방 주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이 국내 정치권 상황에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그동안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집어삼켰던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이 트럼프의 당선이라는 예기치 못한 변수에 의해 다소 희석되면서 정국의 이슈가 ‘최순실과 트럼프’라는 두 가지 소재로 양분되는 듯한 분위기다.

무엇보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이제부터는 국정 의 핵심 부분인 경제·외교·국방 분야만이라도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는 여론을 조성하려 힘쓰는 분위기다.

특히 여론은 ‘국정 컨트롤 타워’를 부재 상태로 이대로 놔둘 수 없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국회 가 총리를 추천할 수 있도록 야권이 협조해 달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기자들과 만나 야 3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추천 총리 제안을 거부한 데 대해 “국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국회에서 조속히 총리 후보자를 추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정은 진정성을 갖고 국무총리 추천을 국회에 요구한 만큼 이제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야당에서도 진지하게 임해줬으면 좋겠다”며 책임 총리 추천을 위한 여야 대화를 촉구했다.

또 박 대통령은 야권의 ‘2선 후퇴’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날 외교 업무를 묵묵히 수행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우리나라를 국빈방문 중인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관계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전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로부터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외교·안보·경제동향 등을 보고받았고, 트럼프 당선인과의도 통화했다.

그러나 이 같은 여론의 희미처럼 정국 상황이 변화

새누리 책임총리 추천·대화 촉구

박 대통령 정상회담 등 일정 소화

“트럼프는 트럼프 최순실은 최순실”

민주·국민의당 변수 최소화 부심

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야권은 ‘트럼프 쇼크’와 최순실 사태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박 대통령이 총리 추천 협상에 앞서 ‘완전한 2선 후퇴’와 탈당을 약속해 달라고 계속 요구했다. 트럼프 변수를 차단하면서 ‘최순실 정국’을 더 끌고 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변수를 박 대통령이 국정의 중심으로 다시 복귀하는 명분으로 삼는다면 국민은 더 분노할 것”이라며 “대통령은 국정을 수행할 수 없다. 내치와 외치를 구분하지 않는 민주당의 입장은 바뀔 적 없다”고 말했다.

이상호 원내대표도 “트럼프는 트럼프고 최순실은 최순실”이라며 “민심의 분노는 더 커지고 있다. 12일 집회까지 상황을 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어떤 경우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위지를 스스로 내려줘야 하고, 총리의 성격 규정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김병준 총리 내정자의 정리, 박 대통령의 탈당, 영수회 답을 통한 총리 추천, 그리고 새 총리의 조각권 행사를 일관되게 제한해왔다”고 말했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박 대통령이 빨리 2선 후퇴하고 새누리당을 탈당해야 정국이 가라앉아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대통령 퇴진 촉구 국회의원 대토론회 1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통령 퇴진 촉구’를 위한 국회의원 대토론회에 참석한 야당의원들이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대통령 사퇴·탄핵 여론 60% 넘었다

42%→55%→60%, 갈수록 늘어...20~30대 80% 근접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사퇴(하야)하거나 탄핵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6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CBS 라디오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한 정국 수습책에 대한 여론조사를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결과, ‘자진 사퇴하거나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이 10명중 6명 이상인 60.4%로 조사됐다.

반면, ‘새누리당 탈당 및 여야 합의 총리에 국정 이양’ 의견은 18.4%, ‘박 대통령 또는 김병준 중심으로 국정 정상화’ 의견은 14.1%로 집계됐다.

박 대통령이 제1차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했던 지난 10월25일 조사에서는 ‘자진 사퇴 및 탄핵’ 의견이 42.3%, 최순실씨가 긴급 체포돼 검찰 조사를 받았

던 11월2일 조사에서는 55.3%로 10%p, 이번 9일 조사에서는 60.4%를 기록하며 지난 달 25일 대비 20%p 가까이 ‘자진 사퇴 및 탄핵’ 여론이 더 늘었다.

‘자진 사퇴 및 탄핵’ 의견이 가장 높았던 연령층은 20대(사퇴·탄핵 78.4%, 탈당·국정이양 8.2%)와 30대(사퇴·탄핵 77.7%, 탈당·국정이양 11.1%) 등으로 80%에 근접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32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15%), 스마트폰앱(38%), 유선(18%)·무선(29%)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2%)와 유선전화(18%) 병행방법으로 조사했고, 응답률은 11.4%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2%p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트럼프 쇼크에 ‘임종룡 원포인트 인사청문’ 열까

새누리 “경제 수장 빨리 임명해야”

민주당 “헌 상공 고려 단계 아니다”

국민의당 일부 분리 추진 의견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면서 여론을 중심으로 임종룡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의 인사 청문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는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정진석 원내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는 ‘트럼프 리스크’가 안보와 경제 분야 등에서 당장 가시화될 수 있다며 국무총리 후보자 추천은 뒤로 미루더라도 원-포인트 인사청문회라도 개최, 경제부총리를 하루빨리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8일 여야 합의로 총리를 추천해줄 것을 요청한 상황에서 새로 임명되는 총리에게 내각 구성 문제를 맡길 수밖에 없어 입장이 애매하다. 내부적으로는 경제위기 극복이 시급하다는 점에서 여야가 내정자 문제를 전향적으로 처리한다면 인사 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는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다.

반면, 야권은 여론이 제기하는 ‘임종룡 원-포인트 인사청문’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자칫 잘못하다가 여권의 국정 정상화 프레임에 말려들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임 부총리 인사청문은 아직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야권 내부의 고민도 크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컨트롤 타워 공백을 마냥 지켜보고 있을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국민의당 등 야권 일각에서는 임종룡 부총리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를 분리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지난 7일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계속하는 임 후보자를 앉히는 정리를 빨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9일 야 3당 대표 회담에서 이를 의제로 꺼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위원장은 1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시 회담에서 임종룡 후보자를 먼저 처리하자고 제안했으나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국민에 심려 끼쳐 죄송”...박승주 국민안전처장관 내정자 자진 사퇴

박승주(64·영광 출신) 국민안전처 장관 내정자가 지난 9일 자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박 내정자는 이날 밤 9시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안전처 장관 내정자의 지위를 내려놓겠다”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청소년 인성진흥 등 사회를 위한 활동들로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박 내정자는 지난 2일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의 추천으로 함께 안전처 장관에 내정된 지 1주 만에

각종 논란으로 낙마하게 됐다.

그는 곳만 논란과 관련해 “전체 재원 문화행사에 참여했는데 결과적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됐다”며 “중고나 무속행사라고 생각했으면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사논문 표절과 관련해서는 “본의 아니게 연구원 박사의 논문내용과 겹치고 인용구적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한 점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쌍용자동차 11월 앵콜! 쌍용세일 페스타

앵콜이니까~ 더 다양한 혜택으로 더 큰 기쁨을! 이런 찬스, 딱 한달간만 계속됩니다

할인

렉스턴 W
최대 312만원

코란도 투리스모
최대 238만원

코란도 C
최대 234만원

코란도 스포츠
최대 126만원

티볼리에어
최대 101만원

티볼리
최대 100만원

11월 단 한 달간의 스페셜 구매혜택

3% 할인
[5년 10만km 무상보증 업그레이드 + 20만원 지원 (제한 사항)]

3% 할인
[5년 10만km 무상보증 업그레이드 + 20만원 지원 (제한 사항)]

7% 할인
[Amazing Auction (제한 사항)] 최대 50% 할인 가격에만는 특별한 혜택이벤트
• 쌍용 Festa 7월 100만원 지원 (제한 사항)

5% 할인
[5년 10만km 무상보증 업그레이드 + 4WD 시스템 장착비 50% 지원 (제한 사항)]

7% 할인
[5년 10만km 무상보증 업그레이드 + 4WD 시스템 장착비 180만원 지원 (제한 사항)]
• 1년 내 사고시 신차교환

쌍용자동차 대리점이 참신하고 유능한 영업인력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아래 해당 판매점에 연락 바랍니다.

광주점 : 광주중앙 529-0003
전남점 : 순천중앙 723-7100 (061) 나주 334-2727 영광 353-9500 여수구룡 642-1400

서광주 : 383-3434 목포중앙 277-8000 영남 473-3456 영성 852-2892 함평 324-3800

광주광산 : 952-3330 순천 745-3666 진강 433-3100 양 761-8900

광주첨단 : 971-0990 여수 683-1800 동남 537-3100 해광 791-0071

광주빛고 : 655-4001 목포하당 285-7576 성성 395-0007 장안 454-0099

동광주 : 515-1900 화순 371-3555 담양 383-5811 양양 835-5050

광주양산 : 673-8900 장흥 863-2600 완도 554-4545 진도 542-5888